

지식경영과 회계학 교육

박 준 호 *
황 국 재 **

지식사회에 대한 논의는 이제 정체성이나 현실성의 논의에서 탈피하여 지식사회의 밑그림을 이루며 원천이 되는 교육에 대한 논의에 그 역량을 집중을 하여야 할 시점이다. 지식사회에 적합한 교육의 틀의 형성이 없이는 지식사회로의 원활한 전이 및 정착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국가, 조직, 개인의 지식경쟁력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연구는 회계학 분야를 대상으로 지식사회환경으로의 전이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회계인프라 (infrastructure)의 구성 요소별로 살펴보고 지식사회에 필요한 회계지식근로자를 정의하여 이러한 회계지식근로자가 교육되고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회계교육 틀의 수행을 위해 유용한 방법론 몇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식사회에 적합한 회계지식근로자의 양성을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 회계학교육에서도 학습환경조성 및 폭 넓고 다양한 기회제공을 통하여 유연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회계학교육은 의사소통 및 대인기술 등을 기본적 소양으로 지식경영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배출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자격 시험 역시 지식사회에서 필수적인 지식의 습득 여부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지식경영환경 하의 회계학교육을 위한 방법론으로서는 원격교육 및 웹기반 교육, 토론식 강좌 및 그룹과제의 활성화, 영어전용강좌의 확대, 분석적 능력을 위한 교육, 정보기술의 교육, 지식경영시대에 적합한 시험의 고안, 컨소시엄의 형성을 통한 교육역량의 확충 등이 있다.

교육적 재원은 한정되어있고, 정책적인 지원이나 개혁의 진행은 미미하다. 또한 범세계적으로 공인 받는 회계분야의 자격증인 공인회계사시험에 관련된 교육은 포기 될 수 없으며 회계의 분야별로 환경변화의 수용가능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식경영사회를 기본의 명제로 받아들이고 이에 적합하고 능력을 갖춘 인재를 목표로 꾸준히 교육의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는 데는 아무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물론 회계교육의 개혁은 교육자 혼자의 힘으로 완성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의 정확한 인식과 많은 교육자의 참여, 정책적 변화와 보다 많은 재원, 교육수요자의 의식변화 등 교육의 모든 구성요소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자 자신이 주도권 (initiative)을 가지고 개혁을 선도해 나갈 때, 지식경영사회의 교육이상이 현실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식환경으로의 변화속도는 교육시스템의 의미를 분석하고 체계적 정리를 하기 위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빨리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관심으로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 한양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전임강사

**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1. 서론

30년 전 Drucker는 탈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생산수단은 지식¹⁾이며 앞으로도 또한 지식 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점차 정보통신산업, 컨설팅산업 등 정보·지식을 판매하는 산업이 핵심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기존 제조업도 정보·지식의 집합체인 소프트웨어 도움 없이는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경제계를 포함한 모든 사회는 '정보·지식'이 키워드가 되는 지식사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즉, 지식사회에 대한 논의는 이제 정체성 논의나, 유행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하는 논의에서 벗어나 범세계적 경제질서의 기본적 틀로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보다 효율적인 지식사회의 건설 및 지식경영²⁾체계의 설립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사회에 대한 논의들의 대부분이 논의의 편이성 및 수월성 때문에 기술이나 시스템에 대한 논의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볼 때 지식사회의 근본적 원천인 교육에 대한 깊은 논의 없이 지식사회의 건설이나 또는 국가, 조직, 개인의 지식경쟁력을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다.³⁾ 지식경영시대에 적합한 교육의 틀이 형성되어야만 지식사회로의 전이 및 지식사회의 정착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경쟁력이 함양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회계학분야를 대상으로 지식사회환경으로의 전이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회계인프라 (infrastructure)의 구성요소별로 살펴보고 지식사회에 필요한 회계지식근로자를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회계지식근로자가 교육되고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틀의 제시

- 1) 지식경영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선 지식의 본질과 유형을 알아야 하며,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료(data), 정보(information), 지식(knowledge)간의 개념적 차이를 알아야 한다. 자료란, 사건이나 사태를 단순히 기술적으로 서술한 것이고, 자료를 의미 있는 형태로 체계화 조직화한 데이터를 정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이란 겉으로 드러난 사실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특정한 현상이나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조합해서 분석하고,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주어진 현상의 이면을 근원적으로 이해하여 문제해결과정에 적극 활용하거나 특정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일련의 실천활동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계량의사 결정이론에서는 이러한 지식을 Nonaka Ikujiro(1994)교수의 분류법을 따라 "형식지(explicit knowledge)"와 "암묵지(tacit knowledge)"로 분류하는데, 자세한 것은 지식경영관련 서적을 참고하기 바란다.
- 2) 지식경영의 정의에 대해서는 지식경영에 대한 이론적 기초와 실천적 방법론을 만든 Wiig(1997)의 정의, 지식경영을 통해 산출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파악한 Bechman (1997)의 정의, 지식을 관리의 실체로 파악한 Sveiby(1997)의 정의, 일반기업의 사례를 다년간 연구하면서 지식창조 과정을 이론화한 Nonaka(1991)의 정의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김효근 등(1999)은 지식경영을 조직과 고객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구성원이 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지식을 조직 내 타인과 상호 교환될 수 있는 형태로 저장하여, 활용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조직의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3) 기업의 경쟁우위를 위한 기술적 요소를 강조하는 지식경영시스템 (Knowledge Management System: KMS)의 연구가 무의미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단지 교육적, 심리적, 사회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의 조화에서 한 폭의 완성된 그림이 나올 것임을 강조한다. 지식사회가 그림일 수 없겠으나 만일 지식사회가 방안의 탁자 위의 꽃병에 꽂힌 꽃 (KMS)을 그린 정물화라면 물론 그 그림은 '꽃의 정물화'로 불릴 것이다. 그러나 방안의 정경과 탁자와 꽃병이 없는, 꽃만 그리고자 하는 노력은 '꽃의 정물화'로 불릴 수 없는, 결국 완성될 수 없는 그림이며, 교육이 바로 이러한 그림의 근본적인 배경인 것이다 (특히 유희라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밑그림일 것이다).

를 위해 고려할 점을 찾아보고, 이러한 회계학교육의 틀의 수행을 위해 유용한 방법론 몇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의 저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식사회에서의 회계지식근로자의 양성을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 회계학교육에서도 학습환경조성을 조성하고 폭 넓고 다양한 기회제공을 통하여 유연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회계학교육은 의사소통 및 대인기술 등을 기본적 소양으로 지식경영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배출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지식경영환경하의 회계학교육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원격교육 및 웹기반 교육, 토론식 강좌 및 그룹과제의 활성화, 영어전용강좌의 확대, 분석적 능력을 위한 교육, 정보기술의 교육, 지식경영시대에 적합한 시험의 고안, 컨소시엄의 형성 등이 있다. 지식환경의 변화는 교육시스템의 의미를 분석하고 체계적 정리를 하기 위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빨리 진행되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법론을 개발, 적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2. 지식사회로의 변천과 회계

과거 산업사회에서 개인의 가치는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평가의 근본이 되었으나, 지식사회에서는 자신이 속한 조직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및 지식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의 내·외부에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 및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는, 보다 체계적이고 창조적으로 정보를 수집, 요약, 분석 및 보고함으로써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고,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고객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개념의 서비스(knowledge providing service)를 제공하여야 한다. 회계학 교육은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지식근로자를 교육목표로 설정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식경영환경 하의 회계지식근로자를 정의해 보고자 회계인프라(infra-structure) 구성요소인 회계수행의 주체, 회계서비스의 주체, 회계기준의 제정 및 규제기관으로 구분해 분석을 수행한다.⁴⁾

1) 규제기관 및 회계기준제정기구

규제기관 및 회계기준의 제정기구는 재무회계 및 감사업무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규제기관으로는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회계기준의 제정 주체로는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가 존재한다. 상응하는 한국의 기구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위원회(Korean Accounting Standard Board: KASB)가 있으며, IMF 이후 회계기준의 제정이 민간주도의 구조로 전환되어 현재의 골격을 이루었다. 외부보고 및 외부감사의 기준을 제시하고 감독하는 기능과 지식사회로의 전환간의 연계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4) 또다른 회계인프라의 구성요소로서 회계정보의 사용자(투자자, 여신기관, 정부, 노조, 연구기관, 분석가 등)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회계학 교육을 통하여 발생하는 회계전문인력 및 회계수행의 제반 구조를 이루는 제도 및 기관의 측면에서의 변화에 논의를 국한한다.

규제와 회계기준은 지식사회 및 지식경영환경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회계의 궁극적 목적은 기업의 미래가치예측을 위한 정보의 제공에 있으나 현재의 회계기준은 이러한 궁극적 목적의 수행을 위한 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가치의 측정을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적, 유형적 자산 외에도 비재무적이고 무형적인 자산과 능력을 측정하고 보고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인적자산, 지적자산, 유통망 등 무형적인 효율성, 정보기술의 활용 및 활용능력, 브랜드 가치 및 영업권 등이 모두 기업의 가치에 관련이 있으나 회계보고에는 무시되고 있다. 즉 회계정보이용자의 재무적 (투자 또는 여신 등)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누락되어있다. 이러한 회계정보 상의 문제점은 무형적 가치의 증대성이 커지는 지식사회에서 보다 더 확대되게 된다. 학계에서도 기존의 회계에서 수익적 지출로써 비용처리 되는 연구개발비 및 마케팅비용 등에 대해 자본시장이 자산과 같은 미래의 효용성을 인정한다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Hirschey and Weygandt, 1985; Woolridge, 1988; Bublitz and Ettredge, 1989; Chan et al. 1990.; Lev and Sougiannis, 1996; Barth and Clinch,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치관련성 (value-relevance)을 지녔으며 지식경영 시대에 보다 중요한 요소들이 외부보고 (재무회계)에서 무시되고있는 이유는 회계가 채택하고 있는 기존의 개념적 틀 (Conceptual Frameworks of Accounting)에 있다.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질적 속성 중 신뢰성과 신뢰성의 요소인 검증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화폐단위 측정, 보수주의 등 회계의 제반 가정들 역시 이러한 요소들을 재무보고 상에 올려놓은 것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인과관계 (causal links)와 측정가능성 (measurability)의 해결에 있으나 기존의 개념적 틀 아래서의 수용가능성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OECD와 선진국의 대학 및 연구소, 컨설팅업체를 중심으로 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우리 나라에서도 회계연구원의 정책적 과제로써 지적자산의 측정 및 공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근시일 내에 회계보고의 틀을 바꾸는 변혁이 발생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식사회에서 재무회계시스템이 가지는 문제점의 지속적 논의와 연구가 교육의 전략적 계획 및 수행의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질 것이다. 즉 기존 회계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통해 대학 회계교육의 내용과 방향성 및 방법론에 대한 제고를 촉진하고 나아가서는 지식경영 및 지식사회의 출발점인 교육을 바로잡는 시작이 될 수 있다.

2) 회계법인- 회계서비스의 주체

회계법인은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전문가 집단으로써 기업의 지식경영환경과의 접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사회로의 전이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변혁을 겪고 있는 회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보인다. 과거 전통적인 수익원천인 감사 및 세무대행 서비스수익은 1999년 현재 30%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 반면 경영 및 System Integration 자문수익이 50%가 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⁵⁾ 지식경영환경 아래서 불확실성의 증대,

고부가서비스로의 역량집중, 지식산업으로의 전환 및 범세계적 경쟁의 극심화 현상이 회계법인의 수익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법인은 지식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축으로써 과거 감사 및 세무 등 회계전문지식을 갖춘 인력 뿐 아니라 정보기술 및 새로운 경영의 이니셔티브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 (flexibility)을 갖춘 인력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업무인 감사서비스 자체도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근래 외국 뿐 만 아니라 국내의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인터넷을 채널로 한 재무정보의 공시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효율적이고 수많은 잠재적 투자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 공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새로운 채널을 통한 보고에 대한 감사의견의 제시요구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회계는 다양한 솔루션 (예: ERP)을 통하여 통합된 전산화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공시와 네트워크컴퓨팅 환경은 e-business의 폭발적 증가와 더불어 과거의 시스템 우회적 감사 (audit around the computer: 시스템은 black-box로 남겨짐)나 단순한 시스템 통과적 감사 (audit through the computer: 시스템의 감사가 아닌 시뮬레이션 된 자료를 시스템에 통과 시켜 검증)가 아닌 시스템을 통해 수행되는 거래의 처리를 적극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감사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회계를 모르는 시스템전문가를 감사팀에 포함시키는 것에서 진일보해 감사인 자신이 시스템에 대한 제반 지식을 가지고 감사를 수행하는 효율성을 지녀야만 한다. 즉 회계법인은 과거와 같이 감사나 세무 관련 전문적 지식 뿐 아니라 폭 넓고 유연한 지식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지식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⁶⁾

또한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은 새로운 용어에 대한 지식 부족, 미래의 예측에 대한 능력 부족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기회와 위험요인의 분석을 회계와 경영분석의 전문가집단인 회계법인에 기대하고 있다. 회계법인에게 이들에게 가치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식공급을 담당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지식공급산업 (knowledge providing industry)의 첨병으로써 자신의 전략적 위치를 설정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회계지식근로자를 양성해야 한다.

회계법인 자체의 지식경영 측면에서 볼 때 전통적 감사의 경우 많은 부분이 방법지적인 측면의 지식으로 체계적으로 공유 및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 컨설팅 분야의 지식은 기업의 환경에 특화 되어있고 암묵지 형태에서 형식지로 전환되기 힘든 지식의 형태를 가진다고 볼

5) 세계적인 거대 다국적 컨설팅회사의 대부분이 회계법인 소속이거나 회계법인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왔다. 1998년 수주액으로 본 세계 10대 컨설팅업체는 1~4위까지를 포함 6개의 업체 (Anderson Consulting, PWC, Ernst & Young, Deloitte, KPMG, Arthur Anderson)가 회계법인의 컨설팅사업부 또는 회계법인에서 파생된 법인이다. (자료원: Industry Week, Jan. 24, 2000, Section 6, p84.)

6) 인터넷비즈니스의 가장 큰 두 가지 저해요소는 개인/기업의 정보유출 (Security 또는 Privacy Fear)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도 (배달, 품질, 보증, 대금청구 등의 신뢰성)이다. 따라서 전문적 지식 (professional knowledge)을 갖춘 독립된 제삼자 (independent 3rd party)에 의한 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러한 전문성/독립성의 요건을 갖춘 집단은 공인회계사집단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e-Biz에 대한 검증요구가 새로운 감사업무의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WebTrust가 그 예로써 지속적인 검증 (business practice에 대한 검증)으로 새로운 감사상품이라 볼 수 있다.

수 있다. Ernst & Young 경우 개인의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활용도와 기업에의 지식공헌도를 직원의 5가지 평가항목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으며 다각도에서의 지식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또한 인트라넷 등을 통해 세무관련 관례나 자료 등을 공유하는 등 다각적 지식경영의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⁷⁾

3) 기업회계- 회계수행의 주체

기업의 회계는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용자의 측면에서 크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두 가지로 분류된다. 재무회계는 기업외부의 사용자들에게 투자, 여신, 조세 등의 의사결정을 위해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외부보고의 회계를 담당하는 반면, 관리회계는 기업내부의 경영자를 사용자로 운영계획 및 통제, 전략적 계획의 수립, 수행 및 통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용자 및 회계의 목적의 차이는 두 회계시스템의 범위, 내용, 작성방법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 그러나 통합된 전산화 환경에서 영역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재무회계의 경우, 과거 외부보고를 위해 자료를 입력하고, 취합하고, 정리하고, 엑셀 등을 통해 가공하여 보고하는 과정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자동화됨으로써 업무의 본질이 변화되고 있다. 자동화로 남겨진 시간에 예산통제를 하고 지역별, 고객별, 채널별 수익분석을 한다. 또한 성과측정을 위한 정보를 관리하고 측정치를 개발한다. 즉 관리적 회계와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다고 까지 볼 수 있다. 가장 및 보고서작성업무의 수행자 (bookkeeper)에서 벗어나 지식을 창출하는 분석가 및 전략가 (analyst & strategist)로써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사회에서의 회계수행자는 재무와 관리회계의 구분 없이 정보기술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가지고 기업혁신 (process innovation, ERP, BSC, ABC 등)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전문적 지식 및 분석적 능력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지식근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회계지식근로자에 대한 기대감과 필요성이 현재 회계교육의 문제점을 극심하게 대두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3. 회계학 교육과 지식경영

앞서의 언급된 바와 같이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회계지식근로자의 요건은 과거의 산업시대의 회계전문가에게 요구되던 덕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의 교육에 있어서 변화는 상당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지식사회에 적응하고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인재를 배양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커져가고 있다. 1997년 Fortune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업이 회계전공 졸업생에게 원하는 항목은 기존의 회계지식 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기술, 그룹업무 및 대인 기술, 문제해결 기술, PC와 인터넷 기술 등으로, 지식사회에

7) 물론 지식경영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동의된 틀은 없으나 외국의 회계컨설팅업체는 60년대에 이미 도서관 자료의 대출현황을 기록, 관리하는 등 지식경영의 개념을 일찍이 도입하고 있다.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Lee와 Blaszczynski, 1999, p104). 전문적인 회계기술 외에도, 공동의 그룹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의 공유와 활용을 통한 가치의 생산과 이러한 과정을 효율화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능력 등이 회계지식근로자의 기본적 소양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회계법인 역시 다양하고 유연성 있는 지식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함은 이미 언급된 바와 같다.

이러한 지식사회로의 전이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에 대한 기대감이 그 만큼 큼을 역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비판은 지식사회 및 지식경영에 필요한 인재형성의 출발점이 교육에 있으며 교육의 변화가 지식사회의 진정한 정착 및 지식사회에서의 경쟁력 함양을 위한 첫걸음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의 변화는 단지 교육자 혼자 힘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제도적 틀의 개혁, 환경의 조성, 나아가서는 교육수요자의 사고전환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당면한 지상의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러나 교육자 자신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관련 당사자들 (stakeholders)을 인도해야하며 그대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현재의 회계학교육이 지식사회에서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1) 교육주의 (Teaching) vs. 학습주의 (Learning)

교육 (education)이란 단어의 라틴어 근원인 『educo』는 내부로부터의 변화 (change from within)를 의미한다. 그러나 근자의 지식사회에서의 교육에 대한 논의의 대부분은 'teaching'을 교육에 상응하는 용어로 사용하여 그 의미를 내부로부터의 변화와 무관한 외부로부터 주입식으로 주어지는 현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teaching의 의미로써의 교육은, 내부적·경험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공유하고, 활용해나가는 학습(learning)과 대비되어, 지식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해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용어의 사용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teaching을 기존의 주입식 교육의 병폐를 가지는 현상 또는 사상으로 간주하고 회계학교육에 연계하고자 한다.

교육주의에 대한 비판은 지식경영시대의 교육에 대한 논의 이미 훨씬 이전부터 발생되어왔다. 기존의 교육주의에 대한 비판에서는 교육은 진실한 지식습득과정에 앞서 삶의 형식을 확립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으며, 진실한 지식의 습득은 경험세계와 학습세계의 연결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은 학습 보조활동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형이상학적이고 개념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교육주의가 실제 회계학교육에서 완전히 탈피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물론 주입식의 교육의 폐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본 연구를 통해 주장되는 다양하고 유연성 있는 지식을 통한 지식경영에의 공헌가치와는 상반된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기초적 재무회계원리의 교육은 타 경영교육 분야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정보시스템으로서의 회계의 정의 외에 다른 정의로써 '회계는 경영의 언어 (Accounting is the Language of Business)'란 정의가 있다. 회계가 기업의 재무적 환경에 대한 정

보를 전달하는 언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알파벳과 단어를 배우고 (차변과 대변,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정의, 계정과목), 기본 문법과 속어를 암기하고, 문장을 작성하는 (예: 자산의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의 구성 및 작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언어학과 교육학 측면에서 이러한 언어의 교육이 학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이나 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이론이 있을 것이나, 회계란 언어가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경험적으로 보고, 듣고, 습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주어지거나 그러한 환경의 조성이 힘들다면, 학습주의에 의거한 기초회계원리교육은 실질적 수행이 불가능한 개념일 수 있다. 물론 회계학교육이 현재처럼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을 주입하는 식으로 발생하여서는 안되며 회계처리 및 기준의 이론적 원리를 학습하여 재창조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학습의 장 (場: community, 환경)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⁸⁾ 단지 재무회계의 교육을 과거 사건, 거래, 사상의 기록, 측정, 보고에만 한정한다면, 이는 과거의 기록에 그치는 것이며 창의성과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진 지식인의 기대는 힘든 것이다. 따라서 이론의 습득 및 분석능력의 함양, 정보기술의 회계적용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한 유연성 있는 회계지식근로자를 목표로 회계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분석능력 및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의 필수성은 관리회계분야의 교육에 있어 무한대로 강조된다. 학습주의와 연계해 생각해 볼 때 분석능력의 배양은 결국 계속적 학습에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사료된다.

따라서 총체적 회계학교육은 기술의 단순한 교육에서 탈피하여 교육주의와 학습주의의 적절한 조화에서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지식사회에서의 회계학교육은 학습주의란 커다란 틀 아래서 회계처리과정의 숨은 지식을 찾아내며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지식을 찾아나가는 지식축매적 학습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회계중심의 지식배양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경영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환경변화 및 조류를 인식할 수 있는 회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지식사회의 제대로 된 정보 및 지식의 제공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공인회계사시험과 회계학교육

공인회계사시험이 회계학 교육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회계학 교육이 공인회계사 시험준비에 치우침에 따라 많은 폐단이 발생하였다. 특히 지식사회로의 전환점에 있는 지금, 교육의 방향성을 논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공인회계사시험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02년 시행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공인회계사시험 제도개선(안)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골자인 부분합격제도의 허용, 시험응시자격에 경영학 및 제반과목의 일정 학점수 이상 이수를 필수화, 문제은행제도의 채택 등은 학원식 강의 및 시험준비식 교

8) GAAP의 가장 중요한 일부인 명문화된 기업회계기준 (accounting standards)은 지식수명주기 (knowledge life cycle)가 그리 긴 지식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재무회계의 경우 큰 틀의 변화는 빈번하지 않고 할 수 있다 (IMF 경우는 예외적). 그러나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가하고 변화가 optical fiber 또는 무선의 전파로 전송되는 데이터 전달속도 만큼 빨리 진행되는 현 세계는 기준의 수명주기를 짧게 만들 것이고, 따라서 주입식으로 넣어진 기준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는 곧 무용한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과과정을 정상으로 돌리는 데에 일조 하리라 믿어진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골격의 안이 실제 시행된다해도 지식사회의 의미에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현행 또는 개선안에 포함된 시험과목 및 내용이 지식사회에 적합성 (relevance)을 갖는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지식사회에서의 회계전문인력은 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계처리 뿐만 아니라 경영전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해답 (solution)을 제공하여야 한다. 지식사회에서는 단순한 회계처리나 처리의 검증보다는 지식을 산출하고 수집, 정리해 공유하고 활용하게 하는 것에 더 의미를 두는 것이다. 회계처리나 검증을 할 지라도 보다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방법지를 형성하고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암묵지를 형식지화 하여 조직 및 사회에 가치기여를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경영문제의 해답을 제시하기 위한 지식의 산출 및 제시에서 회계지식근로자의 가치를 찾아야하는 것이다. Supply Chain Management,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Value-Based Management, Activity-Based Costing/ Management, Balanced Scorecard 등이 경영의 이니셔티브 및 도구로 등장하고 있는 현재, 회계지식근로자의 영역은 무한대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DB Marketing의 경우, 실제 마케팅의 전략 및 방법론을 결정하는 것은 회계전문인력의 책무가 아닐지라도 그러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및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Data Mining의 수행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면 통계적 분석방법이나 인공지능경망 같은 기계학습방법을 통한 분석도 학습되어야 하는 것이다. 비단 내부이용자를 위한 지식의 산출 뿐 아니라 재무회계에서도 기업의 분석과 기업가치의 산출 등을 위한 분석적 능력의 증대성이 커지고 있고, 또한 회계법인의 컨설팅 업무 증대와 이에 따른 유연성의 필요는 이미 언급된바와 같다. 이러한 분석적 기법이나 능력의 습득이 창조성이 강조되는 사회에 어떤 중요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창의력과 분석능력은 최소한 본 저자들의 의견으로는 동의어일 수 있다.⁹⁾ 물론 분석을 창의력과 동의어로 취급하는 것에는 많은 반론과 무리가 있을 것이나, 분석을 통하여 현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파악된 사상의 연계를 가시화함으로써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많은 반론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현행 회계교육에서 많은 부분 무시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식근로자로서의 가치를 가진 인재를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폭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자격증인 공인회계사시험에 대비한 교육이 무시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바에는 공인회계사시험제도 자체가 지식사회에 적합한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우리의 공인회계사시험제도 개선안은 많은 부분에서 미국제도의 골격을

9) 경매에 관련된 BM (Business Model)에서 보듯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인 창조성 및 필요지식은 분석을 통한 현실의 명확한 이해와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다. 경매-인터넷경매(auction.co.kr)-역경매(priceline.com)-다자간경매(salesdaq.com)로 발전한 경매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적용 ①인터넷 경매- 새로운 채널을 통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 극복. 단지 source program의 하나 일 뿐; ②역경매- 세계적으로 1일당 빈 좌석으로 이득하는 헛수는 550,00좌석, 따라서 기존의 유통구조를 저해하지 않으며 추가 수익을 창출. win-win situation; ③다자간 경매- ①은 seller→buyer, ②는 buyer→seller, 그렇다면 buyer→seller는 안되나? 이미 주식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현물시장에 적용.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인 양방향성/실시간의 요소를 사업요소로써 극대화)의 주요 예가 될 수 있다.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공인회계사회 (AICPA)는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자신들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B. C. Melancon, President & CEO of AICPA, 1998). 지식기반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에 보다 적합한 시험제도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보다 폭 넓은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시험의 범위를 늘리고 심지어는 응시자의 종합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능력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공인회계사시험제도의 개선을 목전에 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다 미래지향적 (forward-looking) 사고를 가지고 현행 골격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지식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검증하지 못하는 시험제도는 결국 회계인력 유연성을 좁히고 방대하게 확산되고 있는 회계의 영역을 자신이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3) 지식사회에서의 회계학 교육방법론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의 회계학교육은 지식사회의 인재를 배양하기에는 부적합한 여러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식사회로의 너무도 급격한 전이는 지식사회의 틀에 맞는 교육방법론에 대한 체계적 정리를 위한 시간을 허용치 않았다고 까지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방법론이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체계화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은 물론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적 효과를 목표로 하거나 지식사회에 적합한 몇 가지 교육방법론 및 도구를 회계교육과 연관지어 언급하고자 한다.

원격교육 (Distance Learning) 및 웹기반 교육 (Web-based Learning)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network 기반의 원격교육 (또는 가상교육, virtual education으로 표기)이 현실화됨에 따라 효용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지식경영시대의 교육원천으로서 원격교육의 가능성과 가치보다는 기술적 수행방법이나 도구로써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Fauchald (1999)의 경우 일반 경영학교육에 있어서 원격교육의 가능성을 논하고 있으나 초점을 원격교육시장의 현황 및 시장에서의 전략에 두고 있다. Burke와 Slavin (2000)의 경우 회계학교육에 있어서의 원격교육을 논하고 있으나 주로 용이성 및 기술진보에 따른 비용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Jones와 Rice (2000) 경우 MBA 경영컨설팅과목에서 웹기반 교육이 지식공유 (Web-based Knowledge Sharing Tool)의 틀로써 활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웹기반의 교육은 서로간의 상호작용 (interactive)을 통한 학습기회와 repository를 통한 지식의 저장, 공유,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상당히 효율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¹⁰⁾ 또한 웹기반의 교육은 지식경영의 프로세스적 측면에서의 경험적 학습 또는 실습에 가까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웹기반의 교육은 단지 전문대학원의 특수

10) 웹을 통한 교육을 상당히 고도의 기술적이고 새로운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미 많은 사람에게 친숙해진 e-mail 역시 웹기반 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mail을 통해 정보를 수집, 교환하고 게시판을 통해 정보/지식의 repository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과목 뿐 아니라 회계 및 경영교육 전반에 적용가능 하다. 또한 웹을 통해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웹을 활용한 교육은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다. 자료/정보/지식의 repository를 통해 공유와 활용을 도모할 수 있고 실제 지식경영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경험적 학습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¹¹⁾ 이러한 웹기반 교육은 중, 고급회계는 물론 기초회계교육에서도 유용성을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회계이론, 세미나 형태의 과목, 관리회계 과목의 경우 repository, 게시판, 질의응답 등을 통해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리포트의 경우 기말제출형태가 아닌 단계별 완성 또는 학기 중 계속수정의 형태를 통해 완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습득하게 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기초회계과목의 경우에는 이러한 repository 등을 통한 지식의 공유보다는 웹의 속성을 활용한 실무적 능력 및 지식배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비용, 공간, 장비의 문제 때문에 국내대학들은 기초회계수강 시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회계처리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컴퓨터 Lab과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off-line 상의 제약은 on-line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즉 회계순환과정에 따른 전산처리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웹 상에서 제공함으로써 (마치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처럼) 보다 필수적이고 실무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공급자 (vendor)로부터 라이선싱을 받든지 또는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통해 학습용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웹을 비용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회계 교육목표 구현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영어전용 강좌의 확대

전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보량의 90%가 영어로 표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통한 지식의 산출을 위해 영어를 사용하는 강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주성이나 문화적 종속 측면에서의 비난을 떠나 지식사회에서의 생존차원 및 범세계화의 틀에서의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회계학교육에서의 영어전용강좌는 회계분야에 따라 실행가능성과 효율성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재무회계의 경우,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다. 우선 학습 상의 과중한 부담으로, 회계실무로의 진출 또는 회계사자격증의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 용어 (계정과목 등)의 이중습득이 필수적이며 이는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회계사자격증 취득이 무시될 수 없는 현실에서,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1-2년 내에 자격증의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 영어전용은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회계기준 (Standards 또는 GAAP)의 차이는 영어로 쓰여진 국내교재가 없는 현실에서 결국 국내에서 교재를 추가적으로 작성, 학습해야하는 소모적 이중노력으로 이어진다. 단지 추가적 노력의 투입을 넘어 용어의 선정 등 실질적인 어려움

11) 원격교육은 기술적 측면에서 synchronous (real time)와 asynchronous (delayed time)로 구분된다. 물론 교육적으로 synchronous가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으나 비용 등 현실 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Asynchronous의 경우에도 지식사회의 학습적 관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 강조될 수 있는 synchronous에 비해 상호작용에 따른 학습기회가 적으며 따라서 효율적 학습을 위해서는 더 세심한 고안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분류에 상관없이 원격교육은 일반 강좌에 비해 더 많은 교육적 준비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Kaplan, 1997).

이 예상된다. 결국 지식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의적 목표 아래 영어의 해독 능력과 발표능력의 배양을 통해 지식을 원천인 정보를 스스로 찾아내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어전용강좌의 확대가 필요하나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이미 실무적으로 원어의 사용이 보편화된 관리회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약이 미미하며 공인회계사시험 관련해서도 큰 지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여진다.¹²⁾ 또한 관리회계의 경우 국경 없는 경쟁사회에서 국내환경의 특수성에 따른 차이보다는 기업운영의 효율성제고나 전략적 계획의 수립 및 통제를 위한 경영개념과 방법론의 습득에 초점을 두므로 영어전용강좌 및 영어원서사용에 따른 제약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기초개념의 명확한 습득을 강조하고 현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국내환경의 특수성에 따른 개념과 방법론의 차별적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전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각 회계분야별 특성과 현실적 제약 및 공인회계사시험준비를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는 지식사회의 명제아래 영어전용강좌가 필요하나 영어교재의 국내제작 등을 거쳐 단계적인 확대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토론식 강좌 및 그룹과제의 활성화

토론식 강좌의 교육적 유용성은 이미 지식사회로의 전이 훨씬 이전부터 강조되어왔다. 회계교육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이론 부분이나 특히 세미나과목이 토론의 효용을 볼 수 있는 분야이다. 그룹과제 역시 이미 타 경영학 분야에서는 교육방법론으로써 활성화되어 있다. 회계학교육의 경우 토론 및 그룹과제 방법론을 등한시 해온 감이 있으나 시사적 주제를 다루는 세미나과목이나 기업분석 (또는 재무제표분석)과목에서의 활용가능성은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방향의 교육은 앞서 언급된 지식경영환경 하의 기업이 요구하는 회계전공 졸업생의 덕목을 함양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지식경영환경에서 기업은 공동작업을 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진행하여 지식을 산출, 공유, 활용함으로써 기업전체의 지식에 공헌하는 인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룹과제의 경우 과제의 발표를 통해 의사전달을 학습하고, 토론 역시 단지 정리되지 않은 토론에 그치지 말고 토론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하게 함으로써 의사소통과 전달을 학습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토론이나 그룹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식을 체계화하는 과정 (process)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분석 및 논리적 접근을 강조하는 강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식은 현실을 명확히 분석, 이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 지식의 원천인 자료 (data)와 정보 (information)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한 과정 및 실천적 활동을 통해 이면의 근원을 이해하고 지식을 산출하는 과정을 위해서도 분석 및 가공의 능력은 필수적이다. 꼭 지식경영의 틀에 끼워 맞추지 않더라도 현재 회계인력은 다양한 분석적 업무를 수행하고

12) 특히 세무회계도 현실 상 영어전용강좌의 실행은 힘들다. 또한 감사의 경우에도 용어를 이중으로 습득하고 감사기준을 국문으로 소화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있다. 따라서 분석적 능력과 논리적 접근능력을 키워주는 학습방법이 중요하다. 예로써 분석기법에 대한 강의와 논리학 강의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숨어있는 지식을 찾아내는 과정에 쓰임새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독립된 분석법강좌나 논리학강좌 외에도 기존의 회계학 과목에서도 이러한 분석능력 및 논리적 사고를 키우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하며 얼마든지 기존의 틀에서도 수용할 수 있다. 통계적 분석과목들의 경우 회계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유도를 통하여 지식사회에서 회계지식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의 하나로 인식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분석을 위한 도구 (패키지화된 도구: 예를 들어 통계소프트웨어나 Data Mining tool 등) 등의 활용능력도 키움으로써 지식사회에 대비하여 분석 및 논리적 접근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기술의 교육

현시대를 표현하는 다른 용어로 정보화시대가 있다. 네트워크환경 (WWW, 통신프로토콜의 표준화 등)의 확산, 정보통신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폭발적 발전은 이러한 정보화시대로의 전이를 촉진시키고 있다. 지식사회에서의 경쟁력은 이러한 정보를 수집, 요약, 가공해서 어떻게 지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있다. 정보를 다루고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새로운 환경에서 지식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인 것이다. 회계분야 역시 이러한 정보기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기업의 회계는 전산화되었을 뿐 아니라 독립된 시스템이 아니라 여타 경영정보시스템 (예: 인사, 재무, 영업, 생산 및 재고 등)과 통합되어 전사적으로 통합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웹기반의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웹을 통한 정보의 유포 및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회계법인인 그룹웨어 등을 통하여 새로운 회계기준 및 세법조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교육을 하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비즈니스는 회계법인에게 새로운 수입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서비스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의 어느 분야로 진출을 하든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 및 활용능력을 필수적인 상황이다. 물론 정보기술의 공학적 측면에서의 전문성보다는 정보를 수집, 처리, 가공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활용능력이 기본적인 요소이다. 단 회계 교과과정은 단순히 전산회계나 워드프로세싱, 엑셀스프레드쉬트, e-mail의 사용 등을 넘어서, 보다 실질적으로 지식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엑셀의 경우 장표작성 등 정보기록을 위한 도구로써 뿐 만 아니라, 피벗테이블, 간단한 매크로 등을 통해 분석 및 정보활용을 위한 도구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지식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창출된 지식을 네트워크 (intranet, extranet) 등의 통신채널을 통해 유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기술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학습은 회계지식근로자의 소양을 키우는 한편 넓어진 유연성을 바탕으로 기업 및 사회의 가치창출에 크게 일조 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할 것이다.

지식자산 및 무형의 가치와 회계

지식사회에서는 기업의 유형의 자산에 대한 인식 외에도 기업이 가진 무형의 자산 (지식자산,

인적자산, 정보기술 능력, 채널효율성, 브랜드가치 및 영업권 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재무적인 의사결정 (기업가치의 측정, 투자, 여신 등)을 위해 무형자산의 측정, 공시가 필수적이다. 이는 과거의 산업사회에서와는 달리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무형자산의 가치가 기업의 미래에 측을 위해 필수적 정보가 됨에 따라 불가피한 요소가 되었다. 관리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지식자산 및 인적자원관리, 정보화, 브랜드가치의 관리 등을 위해서 무형자산의 측정은 필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무형자산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고, HRM (Human Resource Management: 인적자원관리) 및 KM (Knowledge Management: 지식경영 또는 관리)이 근래에 주목받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측정될 수 있는 것이 관리될 수 있다'는 언급이 의미하듯이 기업이 지닌 지식, 인적, 기술적 능력 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야만 실질적인 계획과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무형자산의 경우,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측정의 틀 및 공시의 방안에 대한 학계와 실무의 동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나, 유형자산에 대한 편중된 강조에서 벗어나 지식경영사회의 키워드인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측정모형들에 대한 소개를 함으로써, 지식사회에서의 회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계인력의 지식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 보다 폭 넓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완성된 측정 및 공시의 틀 (framework)이 발생하기까지는 기존의 회계이론, 세미나 또는 고급회계과목을 통해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험의 경우, 객관식이나 단답형에서 벗어나 분석적이고 생각하는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시험 환경에서 또다른 지식을 찾아나가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모든 다양한 지식분야를 선도할 능력을 갖춘 교육기관을 가정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대학간의 consortium을 형성하여 보다 폭 넓은 지식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현장성을 함양하고 경험적 학습을 강조하는 인턴제도 같은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인 수행가능성에는 의문이 있다. 이러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 및 실제 적용은 지식사회의 정착과 지식사회에서의 국가적, 조직적 또는 개인적 차원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식의 공유를 위한 교육문화적, 교육사회적 환경이 따르는 교육의 장 (community)을 형성해야만 궁극적인 지식경영환경에서의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지식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근로자의 필요요건은 과거의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근로자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교육기관은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덕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러한 덕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회계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미래지향적인 회계학교육의 방향과 방법론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지식사회에서의 회계지식근로자는 과거 단순하게 정보를 수집, 처리, 요약, 보고하는 정보의

기록자에서 벗어나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고, 활용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전문지식 외에도 의사소통능력, 그룹작업능력, 정보기술의 이해 및 적용능력, 분석적 능력 및 해결방안의 제시능력 등 다각적인 능력의 배양이 필요하다. 기존의 회계학 교육은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어 많은 결함을 갖고있다. 따라서 지식사회에서의 회계 지식근로자의 양성을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 회계학교육에서도 학습의 환경조성을 유인해야하고 보다 폭 넓고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연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인력이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키워져야 한다. 회계학교육은 의사소통 (communication skill) 및 대인기술 (interpersonal skill) 등을 기본적 소양으로 지식경영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배출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식경영환경하의 회계학교육을 위한 몇 가지 방법론과 도구를 제시하였다. 원격교육 및 웹기반 교육, 토론식 강좌 및 그룹과제의 활성화, 영어전용강좌의 확대, 분석적 능력을 위한 교육, 정보기술의 교육, 지식경영시대에 적합한 시험의 고안, 컨소시엄의 형성 등이 모두 가능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지식환경의 변화는 교육시스템이 의미를 분석하고 체계적 정리를 하기 위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빨리 진행되고 있다.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교육적 재원은 한정되어있고, 정책적인 지원이나 개혁의 진행은 미미하다. 또한 범세계적으로 공인 받는 회계분야의 자격증인 공인회계사시험에 관련된 교육은 포기 될 수 없으며 회계의 분야별로 환경변화의 수용가능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식경영사회를 기본의 명제로 받아들이고 이에 적합하고 능력을 갖춘 인재를 목표로 꾸준히 교육의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는 데는 아무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물론 회계교육의 개혁은 교육자 혼자 힘으로 완성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의 정확한 인식과 많은 교육자의 참여, 정책적 변화와 보다 많은 자원, 교육수요자의 의식변화 등 교육의 모든 구성요소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자 자신이 주도권(initiative)을 가지고 개혁을 선도해 나갈 때, 지식경영사회의 교육이상이 현실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효근·성은숙, "조직구성원의 지식기여에 대한 평가 및 지식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컨설팅 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 2회 지식경영학술심포지움, 1999, 5.
- Barth, M. E. and G. Clinch, "Revalued Financial,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Associations with Share Prices and Non Market-Based Value Estimates." Working Paper, April 1998.
- Bachman, T., "A Methodology of Knowledge Managem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s(IASIT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I and Soft Computing*, Banff, Canada, 1997.
- Burke, J. and N. Slavin, "Technology Allows Quality Instruction Anytime, Anywhere," *The CPA Journal*, April 2000, p47-51.
- Butler, J. B., and D. Mautz, Jr., "Multimedia Presentations and Learning: A Laboratory Experiment,"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Fall 1996, pp. 259-280.
- Industry Week, "Knowledge Base," Jan. 24, 2000, Section 6, pp. 83-88.
- Bublitz, B., and M. Eitredge, "The Information in Discretionary Outlays: Advertising,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Accounting Review*, Jan. 1989, pp. 103-24.
- Chan, S., J. Martin, and J. Kensingar, "Corporate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and Share Valu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6, 1990, pp. 255-76.
- Cowey, M., "What is a Knowledge Company?," *Management*, Dec. 1999, pp. 106-107.
- Elliot, R. K., "The Third Wave Brakes Shores on Accounting," *Accounting Horizons*, June 1992, pp. 61-85.
- Fauchald, T. H., "Finding a Market for Distance Delivered Business Administration Courses," *Journal of Accounting and Finance Research*, Spring 1999, pp. 9-17.
- Hirschey, M., and J. Weygandt, "Amortization Policy for Advertis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pring 1995, pp. 326-35.
- Jones, N. B. and M. Rice, "Can Web-based Knowledge Sharing Tools Improve the Learning Process in an MBA Consulting Class," *THE Journal*, April 2000, pp. 100-106.
- Kaplan, H., "Interactive Multimedia and the World Wide Web: A New Paradigm for University Teaching and Learning," *Educam Review*, Jan-Feb. 1997, pp. 49-51.
- Melancon, B. C., "The Changing Strategy for the Profession, the CPA and the AICPA: What This Means for the Education Community" (Commentary), *Accounting Horizons*, Dec. 1998, pp. 397-406.
- Lee, D. W. and C. Blaszczynski, "Perspective of Fortune 500 Executives on the Competency Requirements for Accounting Graduates",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Nov/Dec 1999, pp. 104-107.
- Lev, B., and T. Sougiannis, "The Capitalization, Amrtization, and Value-Relevance of R&D,"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Feb. 1996, pp. 107-138.
- Nonaka, I., "Knowledge-Creating Company" *Harvard Business Review*, Vol. 69, Nov-Dec. 1991, pp. 96-104.

- Park, Joanho, "Digital Way of Accounting," *Proceedings from 2000 MIS/OA International Conference*, June 2000, pp. 156-160.
- Sveiby, K. E., "The New Organizational Wealth : Managing and Measuring Knowledge Assets," San Fransisco, CA : Berrett-Koehler, 1997.
- Wig, K. M., "Knowledge Management : Where did it come from and where will it go?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Elsvier : Pergamon Press*, Vol 14, Fall 1997.